

공연 Review

# 파가니니 자동판매기 권혁주' ... 소름 돋는 매혹적 선율 선사

제11회 JK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JK챔버오케스트라는 1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가족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을 열었다. (사진제공=석명용)

내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를 처음 본 것은 2008년 귀국 독주회였다. 그때 그의 레퍼토리는 고도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요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이었다. 당시만해도 권혁주는 신예였지만 그의 수상경력 한 줄이 나를 연주회장으로 이끌었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쿨 1위 입상이었다.

1954년 파가니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처음 열린 이 콩쿨은 2004년 까지 50회를 치르는 동안 그 권위를 인정받아 입상자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발돋움하는 등문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가니니 자동판매기'란 별명에 걸맞게 권혁주는 이날 보란 듯이 활을 켰다. 계속되는 트릴, 2-3음이 한꺼번에 연주되는 더블 스톱(중음주법), 휘파람소리 같은 하모닉스, 지판을 짚으면서 동시에 줄을 튕기는 왼손 피치카토 등 현악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주 기법을 보여주며, 바이올린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선율이 관객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날이 볼때마다 발전하는 그를 보면서 앞으로 '비르투오소(음악적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 파가니니 곡 즉석 연주 '신선'

소외된 이웃대상 표 7백여만원 봉사  
친근한 영화속 클래식 14곡 공연

오보에'를 연주할 때였다. 평소 오보에에 익숙했던 이 곡을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들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긴장과 감동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벨라 판타지야'를 현악기로 들으니 조금 덜 차분해지는 맛은 있었지만, 가브리엘이 연주했던 영화속 장중함은 그대로 느껴졌다.

피아니스트 김성연의 <엘미라다간> 주제곡인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 21번 2악장과 카운테르테너 이재희 헨델의 '리날도중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임세라의 '잔니 스키키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은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애프터타이저 역할을 해주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혈액암협회, 보리수아래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7백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후원하는 훈훈한 보시행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 뮤지컬로 만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

눈물 바다된 '꽃신'  
배우 오디션 현장

"위안소로 끌려가서 60년을 중국에서 살다가 왔다. 위안소는 사람 살 곳이 못돼. 도살장 같은 곳이야. 집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했지. 이제는 할머니들이 다 죽어 가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죽어도 이 문제는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

뮤지컬 꽃신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할머니의 말씀에 오디션 현장에 참여한 배우며 심사위원들 모두 눈물을 글썽인다.

역사마저 침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룬 국내 최초 뮤지컬 <꽃신>이 공개 오디션이 진행됐다. 1월 20일 대학로 좋은공연연내소 다목적홀에서 열린 배우 선발 1차 오디션 현장은 역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알고고자 하는 배우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박옥선 할머니(90)와 나눔의 집(원장 원행) 안신권 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안신권 소장은 "뮤지컬 <꽃신>의 배우 오디션 공고 조회 수가 1만 4천 건이 넘는 정도로 뮤지컬 배우들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재능기부로 뜻을 같이 하려는 360명이 지원했다. 오디션을 통해 주연을 포함한 20여 명의 배우들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가 예술감독 겸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섰고 옥경선 작가와 최지혜 작곡가가 대본과 음악작업을 진행하고 있



역사마저 침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룬 국내 최초 뮤지컬 <꽃신> 공개 오디션이 1월 20일 대학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참여해 지난날을 아픔을 털어놓자 심사위원들과 배우들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나눔의 집 할머니 심사위원 참여  
오디션 참가 배우들에 심정 토로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 등 재능기부  
하반기 초연, 전국 공연도 계획



뮤지컬 '꽃신' 포스터

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능기부로 절약된 제작비는 관람료를 낮추고 소외계층의 공연초청 등에 사용된다.

주인공 순옥 역을 맡아 재능기부를 펼칠 배우 강효성 씨는 오디션 내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강 씨는 이번 오디션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알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얘기 들으니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눈물이 마르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또 역사 문제를 넘어 한 여자로서의 할머니가 느껴졌어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온 할머니의 삶이 남 일 같이 느껴지지 않네요."

뮤지컬 <꽃신>은 결혼을 앞둔 열일곱살

순옥의 이야기다. 자신이 짝사랑하던 윤재와 결혼을 앞두고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수난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세상과 섞이지 못한다. 그러던 중 순옥이 사랑했던 윤재는 그녀에게 꽃신을 주며 청혼을 하는데...

뮤지컬<꽃신>은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나눔의 집'과 함께 올 하반기 전국 공연을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2차 오디션은 2014년 2월 8일 진행된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생존 할머니는 56명이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87.2세다. 역사의 산 증인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뮤지컬 꽃신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려나가는 또다른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420-29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전통 건축물 펜화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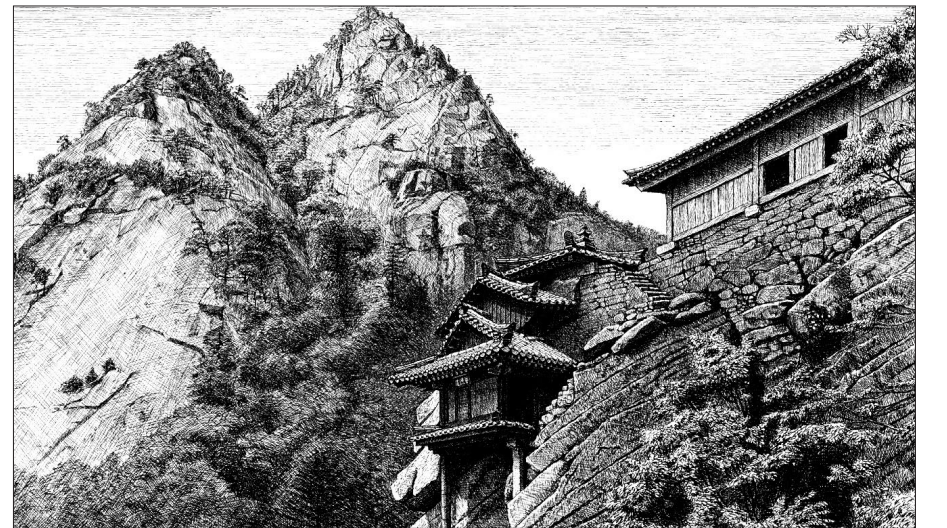
김영택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 출간

"제가 펜화에 담고 싶어 하는 우리건축의 아름다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아의 아름다움'이며, 세계의 건축이 추구해야 될 '자연이 우선하는 건축'입니다."

펜화가 김영택 씨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록펜화'의 대가 김영택 화백이 한국 전통 건축물을 그린 펜화 91점을 모은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서울셀렉션)를 출간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거의 30년간 건축 문화재를 펜화로 담아내고 있는 김영택 화백은 세밀화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김 화백의 그림들이 신문과 잡지 연재를 통해, 그리고 에세이와 아동서를 통해 소개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많은 수의 작품이 한 권에 수록되어 도록 형태로 출간되기는 처음이다.

김영택 화백은 0.05mm의 가는 펜을 이용해 작품 당 50~80만 번의 펜 터치를 가해 그림을 완성한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그려낸 건축물, 성벽, 기와장, 소나무, 바위 등의 세밀한 모습은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명암은 작가가 혼신을 쏟은 결과다.



펜화가 김영택 씨가 91점의 전통 건축물을 담은 도록을 발간했다. 작품은 금강산 보덕암.

특히, 이번 도록에서는 금강산 보덕암과 신계사,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 대웅보전 등 불교 문화유산을 펜화로 만날 수 있다.

'김영택 원근법'을 이용한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34-9565 정혜숙 기자

## 불교종합쇼핑몰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